

오미크론 우려에 세계경제 '시계 제로'

금융시장·기업들 혼란

변이 정보 나올때까지 불확실성

유가 폭락...항공·여행업 타격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산 우려에 세계 경제의 앞날이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오미크론의 전염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기존 백신으로 예방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가 나오지 않아 지난해 코로나19 대확산(팬데믹)에 따른 국경 폐쇄와 봉쇄령, 그에 따른 경제활동의 위축이 재현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금융시장 최소 2주 불확실성 지속'=29일 외신에 따르면 오미크론이 '우려 변이'(variant of concern)로 공식적으로 분류된 지난 26일 미국과 유럽, 아시아 증시가 최근 보기 드문 급락장을 연 출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말 그대로 '검은 금요일'이 됐다.

문제는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세계 금융시장의 운명이 부분적으로 오미크론을 조사하는 연구소들의 연구 결과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오미크론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갈구한다는 것이다. 씨티그룹은 오미크론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나오기까지 2~8주가 걸릴 것이라며 그동안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검은 금요일'에 증시가 크게 하락한 반면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미국 10년물 국채는 지난해 팬데믹 초기 수준까지 내려갔다. 채권 금리는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BCA 리서치의 피터 베리진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최소한 앞으로 2주간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주식이 10% 이상 하락하면 매수 기회라고 말했다.

◇국제유가도 폭락...OPEC+ 회의 결과가 향후 향방 좌우할 듯=금융시장과 함께 국제유가도 출렁거렸다. 26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가격은 13.06%, 브렌트유는 10.7% 각각 폭락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

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의 12월 2일 회의로 쏠리고 있다.

OPEC+는 오미크론 충격에 따른 유가 급락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당초 29일 예정된 공동 기술위원회 회의를 12월 1일로, 공동 장관급 모니터링 위원회는 30일에서 12월 2일로 각각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단, 내년 1월 증산계획을 결정하는 석유장관 회의는 예정대로 12월 1~2일 열린다.

OPEC+는 미국 주도의 전략적 비축유(STR) 방출 효과도 고려해야 하므로 선택이 복잡해졌다.

OPEC 추산에 따르면 내년 초에는 원유의 초과 공급이 전망된다. 여기에 전략적 비축유 추가분의 영향을 상쇄하려면 내년 1~2월 증산을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기업들 대응 혼란...항공·여행 스케줄 재조정=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기업들이 오미크론에 우려와 혼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러 기업이 내부 회의를 열어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보건료의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팬데믹 당시 취했던 방역 조치와 근무 방식 등을 재검토하고 고려 중이다. 하지만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것이 대세적인 흐름이라고 저널은 전했다.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식품 유통업체들도 일단 오미크론에 대한 더 명확한 정보가 나올 때까지 현재 운영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대기업들로서는 오미크론이 미 행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백신이 오미크론을 예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어떻게 강요할 것이라는 하소연이 기업 경영진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미크론 출현으로 각종 정부가 여행 제한 또는 격리 조치를 내릴 때 항공·여행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연합뉴스



남아공 공항 항공편 찾는 여행객 28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OR탐보 국제공항에서 한 여행객이 바닥에 주저앉아 탑승 가능한 항공편을 찾고 있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진원지인 남아공과 인근 남아프리카 국가에서 오는 항공편의 입국을 차단했다. /연합뉴스

기업 뇌물 위험도, 한국 21번째로 낮아

미국 23위·북한 꼴찌

한국의 뇌물 위험도가 전 세계에서 21번째로 낮은 조사가 나왔다. 북한은 뇌물 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분류됐다.

윤리적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인 TRACE가 지난 17일 발표한 뇌물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조사 대상 194개국 중에 21번째로 낮았다.

이 조사는 ▲ 기업의 정부와 상호작용 ▲ 뇌물 억제 및 법 집행 ▲ 정부와 공무원의 투명성 ▲ 시민사회 감독 역량 등 4개 부문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각국에서 사업을 할 때 뇌물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을 지표화한 것이다.

한국은 2014년 첫 조사 때 17위로 일본(8위)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위험도가 낮은 국가였고, 이후 2016년 28위, 2017년 33위, 2018년 25

위, 2019년 23위, 2020년 22위에 올랐다. 한국은 2019년 일본과 대만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위험도가 가장 낮은 국가에 올랐지만, 2020~2021년 2년 모두 두 나라에 밀렸다.

북한의 경우 이 조사에서 하위권을 맴돌며 최근에는 2년 연속 최악의 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북한은 조사에 처음 포함된 2016년 199개국 중 128위였다. 2007년 199위, 2017년 197위, 2018년 195위, 2019년 198위였다. 이어 2020년과 2021년에는 조사 대상 194개국 중 꼴찌를 연이어서 기록했다.

2021년 기준 194개국 중 뇌물 위험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덴마크였고, 이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뒤를 이었다. 미국은 23위, 중국 135위였다. 베네수엘라,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은 각각 191~193위로 북한과 함께 뇌물 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군으로 분류됐다. /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생테티엔과 파리 생제르맹이 맞붙은 생테티엔의 경기장에 관중들이 가득 차 홈팀을 응원하고 있다.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보건장관은 국내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없으며 기존 델타 변이 방역 전략은 수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일본, 오미크론 차단 위해 한국 등 외국인 입국 금지

일본인 배우자 등에만 예외

일본 정부가 30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9일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입국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외국인 입국을 30일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밝혀질 때까지 일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인 귀국자를 대상으로는 새 변이가 처음 발견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9개국 외에

새 변이가 확인된 14개국·지역에서 들어올 경우에도 엄격한 격리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오미크론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남아공을 포함한 아프리카 9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을 28일 오전 0시부터 금지하고 이들 국가에서 귀국하는 일본인과 재입국하는 외국인을 검역소 지정 시설에서 10일 동안 격리 차원에서 대기토록 했다. 일본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신규 입국 금지 대상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자국민에 대해서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격리 검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일부터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

자와 유학생 등 제한적인 입국이 허용되던 외국인의 일본 입국 길이 다시 막히게 됐다. 일본 정부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입국을 계속 허용할 방침이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대상은 일본인을 배우자로 두거나 외교관, 공이성이 있는 사람 또는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등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들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면서 제한적으로 외국인 입국 규제를 완화했었다. 그러나 오미크론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선제적으로 외국인 입국을 다시 막는 초강도 방역 대책을 꺼내 들었다. /연합뉴스

바이든 불출마시 민주당 대선주자 해리스 1위

미셸 오바마 오차범위내 2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불출마할 경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미셸 오바마 여사가 민주당 대선 주자로 선두권이라는 여론 조사가 나왔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지난 18~19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해리스X와 공동으로 유권자 939명을 대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기로 할 경우 민주당 주자 중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는 조사를 실시해 지난 26일 보도했다. 이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13%를 얻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이 10% 지지율을 보였다. 두 사람이 오차범위(±3.2%포인트) 내 선두권을 형성한 것이다. 반면 2020년 민주당의 대선 경선에 나선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사업가 앤드루 양, 피트 부티지 지 교통장관 등은 모두 5% 이하 지지를 받았다. 응답자의 36%는 누구를 지지할지 확신이 없다고 답했고, 13%는 설문 문항에 없는 다른 인물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재선 도전 의향을 이미 밝혔지만, 최근 지지율 급락에다 현재 78세의 고령 탓에 불출마를 선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꾸준히 나온다. 첫 여성이자 흑인 부통령인 해리스는 일찌감치 바이든 대통령을 이을 주자군에 포함됐다. 최근 CNN방송을 비롯한 일부 언론은 백악관 내부에서 차기 대선 후보 가능성을 숨기지 않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노골적 견제가 시작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나이스L																						
 <p>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p> <table border="1"> <tr><th>판매가격</th><th>무상보조금</th><th>도내생산보조금</th><th>본인부담금</th></tr> <tr><td>833만원</td><td>303만원</td><td>48만원</td><td>482만원</td></tr> </table>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p>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p> <table border="1"> <tr><th>판매가격</th><th>무상보조금</th><th>도내생산보조금</th><th>본인부담금</th></tr> <tr><td>650만원</td><td>330만원</td><td>48만원</td><td>272만원</td></tr> </table>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p>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p> <table border="1"> <tr><th>판매가격</th><th>무상보조금</th><th>본인부담금</th></tr> <tr><td>462만원</td><td>330만원</td><td>132만원</td></tr> </table>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 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